

2002년 6월 25일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신앙이 더욱 더 굳건하여
내가 거룩한 이곳에서 주는 메시지
들을 더욱 잘 받아드릴 수 있도록 성
령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오늘 너희
들을 위해 함께 하며 그분께 기도하
고 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 시기는 너희 각자를 위한 은총의
시기이며 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해다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모두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
고 싶구나. 나의 메시지들을 따라 살
며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활 속
에서 실천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하
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들에게는 참으로 고귀한 것들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6월 메시지 묵상

천상어머니 평화의 모후께서 우리들
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 우리와 함께
전구하며 성령께 힘을 청하고 있다
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만
이 하느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들의 삶도 의미가 없으
며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충실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
는 우리들의 교회는 박물관으로 전

락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삶과 사랑, 신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 안에서만이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
평화의 여왕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할 수는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의
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되며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께 드리는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향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볼
수있게 파헤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이하의 내용은 본지 7면에서 계속됩니다. -

메주고리에

Medjugorje

제16호

August, 2002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상처받은 우리의 사랑을 치유해 주소서



요조 신부
(프란치스코회)

주님,
성령을 보내소서.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치유해주소서. 상처받은 우리의 사랑을 치유해 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시어 성령께서 저희들을 채우시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빛처럼 모든이들에게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머니시며 평화의 모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성모님의 말씀들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애원하오니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모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기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곳의 순례는 보통 순례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듯이 이 순례의 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여러분에게 변형되어감을 제시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곳에 오셨나요?

성모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모든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1987년 5월에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다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어느 것 하나도 모자라거나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분이 비오는 밤을 내다 보면서 목상한 것을 나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의 빗방울이 떨어져 엉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빗방울은 강물에 떨어져 바다와 일치한 것을

보았고 어떤 빗물은 장미 꽃 위에 떨어져 꽃의 양식이 되어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방울은 뜨거운 다리미 위에 떨어져 그냥 증발되어 버렸고 어떤 것은 열려진 조개 입 속에 들어가 진주로 변하였습니다. 각 빗방울 들은 다 똑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생명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성지 순례는 그들의 순례자들을 은총으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순례자들은 새로운 삶 속에서 알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모님께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고 여러분이 이 은총들을 진주로 변화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성모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셨습니까? 변화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냉담자들이나 믿지않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 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가정을 기도로 초대하시며 계속 기도하라고 호소하십니다. 어느날 성모님께서 성당을 찾아 오셨고 우리는 목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성모님께서 자고브에게 나타나시어, "그런 식으로 매일 기도하여라. 목주기도를 매일 바쳐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15단의 목주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성당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공장과 들로 나가 신자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다시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 "입으로 기도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해하지

못하자, 성모님께서, "오늘 밤, 너희 모두는 서로 용서하여야 한다. 너희들 안에서 너희와 늘 싸우는 원수들을 찾아 내어라 그리고 그 아픔을 예수님께 봉헌하여라. 참된 기도를 올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제 서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하자고 권하였고 그 후 20분이 지나자 우리 마음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필요성 그리고 모두를 용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기도는 빛을 줍니다. 그 미사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전 세계를 다 에워싸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기도를 가슴으로 바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변화의 여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시작일 따름입니다. 매일 또 다

른 단계를 내딛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진정한 회심의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성모님께서, "단식하여라. 사탄이 이곳 아주 가까이에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들은 큰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로 '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하였습니다. 모두 의욕적으로 참여하였고 금요일 오후에 모두가 고백성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말씀하신지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구경하듯 왔고 2주가 지난 지금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150명의 사제들이 와서 고백성사를 주었고 사람들은 집에 갈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제들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처럼 진지하게 고백성사 듣기는 처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회심이란 희생을 통해 오는 사랑과 기쁨으로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기도와 단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성모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필

성령 묵상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르코 9,7)

"성령안의 새 삶 세미나"

- 일 시 : 2002년 8월 18일(주일) ~ 21일(수)까지
 - 장 소 : Baltimore Retreat Center
 - 인 원 : 선착순 35명
 - 참 가 비 : \$ 240.00 (3박 4일 숙식비)
 - 준 비 물 : 성서, 가톨릭 성가집, 목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옷차림, 실내화
 - 신청기간 : 2002년 8월 4일까지 (신청비와 신청서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Servants Mission"
 - Mailing Add : 5801 Security Blvd. Baltimore, Maryland 21207
 - 주 관 : Servants Mission
☎ 513-227-9541(최 테레사) 본당사무실 : 410-265-8885
- *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준비서신을 보내드립니다.

Baltimore Retreat Center

김용효 신부

요하다. 너희 각자가 나에게 소중하고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상상 할 수 있습니까? 성모님은 여러분 각자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분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완벽한 평화와 진실된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그분을 필요로 하고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사탄을 몰살 시키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행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밤이 그냥 흘러가면 당신은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빈 말들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굶주리는 군중을 측은히 보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음식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점심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네 점심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였고 이 소년은 그것을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주님께 아주 기쁘게 봉헌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점심을 하찮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군중을 이 점심으로 먹인담!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것으로 충분함을 느끼시면서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소년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지요.... 성모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목주를 보면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이것이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께 봉헌하고 싶어하십니다. 이 작은 소년은 자신의 점심을 포기한 것을 통하여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역시 당신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이득을 줍니다. 여러분은 귀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역시 귀합니다. 매일 성모님께서서는 “기도” 하라고 반복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어떤 이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신앙 간증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는 빈 손입니다. 기름 없는 등잔이고 불이 꺼져갑니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처럼 되었습니다. 성

모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어머니께 봉헌하지 않으시렵니까? 언젠가 성모님께서서는 통곡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왜 우셨을까요? 성모님께서 사제들과 미사 그리고 성서를 말씀하실 때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우리의 가슴을 용해시키고 우리 내부의 악습을 녹이시며 우리의 아픔을 몰아내십니다. 그녀는, “너희들은 성서를 잊었다... 가족 기도는 어디로 갔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뜻은 예수님 발치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 가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의 어머니, 남동생 아니면 여동생이 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화 하십시오. 성모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삶의 가방을 완전히 여시고 봉헌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매일 성서를 읽는다는 결심을 합시다. 그러면 당신의 몸에 생기가 돌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미사에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 - 여러분의 존재를 봉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는 새 인간으로 변화됩니다. 미사 후에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수여 받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제는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미사는 성당 안에서 끝나지만 밖에 나가면서 그 삶이 시작됩니다. 이 삶이 바로 미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모님은 당신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5초 미소짓기 운동을 시작하며...

(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기도와 매일의 삶 안에서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아주 귀중합니다.

성모님은 당신과 함께 당신이 오신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나라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투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갔고 그 거인을 이겼습니다. 당신의 군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단식과 미사를 드리며 사십시오. 성모님의 말씀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기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은 당신의 십자가 밑에서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힘과 용기를 주고 당신의 십자가를 사랑하시며 당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당신에게 십자가를 피하도록 유포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끌어 안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납니다.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께 주어진 십자가를 힘껏 그리고 기쁘게 끌어 안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순례자들을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늘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M**

(요조 신부님께서 티히리나 교구의 엘리사 성당에서 순례자들에게 하신 강론)

(번역 : 평화의 모후 센타)

“하~하~하, 호~호~호~”하고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웃음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풀리지 않아 고단한 몸을 이부자리에서 일으킬 때,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하는 무게가 피곤한 몸과 마음을 더욱 더 짓누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터전에 나와보지만 어제와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주변이 나를 위해 변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 나를 위해 변하는 일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변하는 것이 더 쉬운 일 일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초 미소짓기”운동은 참 아름다운 실천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이웃들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주어, 모두가 미소 띤 표정으로 바뀌어 갈 때, “하~하~하, 호~호~호~”하고 큰 소리로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이웃에, 주변에 권유하여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음에도 미소를 머금은 당신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가슴아픈 일이 있음에도 미소를 머금은 당신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주변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내인생에서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 내가 일부러 지어보는 미소는 2~3초가 고작입니다.

“5초”라는 시간은 약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

사랑하는 메주고리에 자녀들이여!

메주고리에에서는 세계 각처에 있는 사제들을 초대하여 사제 피정을 7월에 시작했다. 우리 모두 그들과 온 세상에 퍼져있는 사제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기로 마음 먹자! 이 기회를 통하여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알려드리자 한다.

“나는 목주기도를 바치라고 촉구한다. 모든 이들이 목주기도를 바치도록 초대하여라! 목주기도를 통하여 사탄이 카톨릭 교회에 입히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모든 사제들이 목주기도를 바치자구나! 목주기도에 더욱 많은시간을 투자하여라.” (1985년 6월 25일, 마리아나가 성모님께 사제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었을 때 주신 말씀)

“사제들은 가정을 방문하며 특히 냉담하는 신자들이나 하느님을 잊은 사람들을 방문하여라. 사제들은 예수님의 복음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라. 사제들은 기도를 더욱 많이 바치고 단식도 하여라.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5월30일, 엘리나에게)

“나의 메시지를 살아라. 교회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여라.”

“강론할 때, 너희는 어려운 철학의 개념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학을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단순한 말로 말하여라.”

“그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사제들의 강복은 내 강복 보다 더 크다. 만일 사제들

이 자신들이 강복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내려지는 것을 안다면 아마 밤 낮으로 강복을 줄 것이다.”

“사제들에게는 비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다. 사제들을 사랑하며 도와달라고 나는 너희에게 당부한다.”

“지금은 사제들이 굳은 신념으로 머물며 살아가기가 무척 힘든 때이다. 너희들이 기도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미사에 참석할 때, 사제를 판단하지 말고, 남들을 바라보지도 말며 사진도 찍지마라. 오직 기도하여라!”

“...사탄은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강하게 덤벼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제들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강한 집착들과 살인들을 시작하였다. 너희들은 기도와 단식을 통하여 너희 자신들을 이것으로부터 보호하여라.” (1982년 마리아나) 

영제 사제님들의 신앙 체험담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신 후 지내시는 하루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신지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소중한 체험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시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증거자가 되시도록 초대합니다.

<원고 보내실 곳> **평화의 모후 센터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
E-mail. gregorynam@hotmail.com

6월 메시지 묵상

... 표지의 6월 메시지에 대한 묵상 계속 ...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면 성령께 기도 드리지 말라”. 어머니 마리아께서 계시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루가 1, 35)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루가 24, 49)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안전”하다고 이 달의 메시지에 서도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는 성모님도 사랑하기 때문이며 어머니 마리아께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시대이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아래 계셨으며,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뒤 “이제 다 이루었다.”(요한 19, 3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모성애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

오! 어머니 마리아여,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하오니,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메시지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빛으로 다가오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삶속에서 기쁘게 실천하고 당신과 함께 당신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게 하소서.

지금은 천국에 계신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지난 발현 15주년에 성모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평화의 모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오! 어머니 마리아여,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리고자 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메시지들과 말씀, 특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저희들이 당신의 사랑 받는 자녀들이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을 안다면 더욱 더 기도하고 기뻐서 울어버릴 것이라는 말씀

에 감사드리나이다. 어머니, 저희들이 당신께 소중한 사람들이며, 저희들 없이 당신은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다는 그 말씀에 감사드리나이다. 제 영혼이 팟브르드에서 당신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당신과 주님께 찬미 드림은 주님께서 당신을 저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나이다. 제 영혼은 성녀 엘리사벳과 본당의 모든 신자들 그리고 순례자들과 함께 기뻐 뛰어 노나이다. 고해성사를 통해 화해한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당신을 받아드리고, 평화로움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정들과 함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오니,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게 하소서.

특별히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받고 버림받은 가정들과 젊은이들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합니다.

평화의 모후여,

천상어머니 마리아께서

모든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전해주시고

불안에 떨고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동정 마리아여

평화의 모후를 통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강복을 내리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영광받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과평화속에서 ..라유브 꾸르로비치 신부드림 **M**

(번역 : 평화의 모후 센터)



Fr. Pater Ljubo Kurtovic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는 전례에 대하여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頂點)이며, 모든 힘이 흘러 나오는 원천”(‘전례현장’ 10항)이라고 정의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전례에 있어서 ‘교우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현장’ 14항 등에서 ‘능동적 참여’라는 표현을 열여섯 번 이상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모든 교우는 전례의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례 의식(儀式)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전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전례에서 이루어지는 의식들의 의미를 주체자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참여한다면,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을 이루기는 커녕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전례는 믿는 바를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전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교우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행하는 의식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직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교우가 전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늘 해 오던 습관대로 전례에 참여하는 듯 합니다.

제목이 말해 주듯이, 교우들이 전례를 더욱 깊이 이해하여 각자 안에서 전례가 더욱 새로워지고 삶과 연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 의 철 신부

앵무새 교우 벗어날 수 있나요?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다 보면 모든 교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 가지 유형의 교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첫째는 병어리 교우요, 둘째는 멧꿩이 교우요, 셋째는 앵무새 교우입니다. 병어리 교우는 전례 시작부터 마침까지 입 한 번 뺨긋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다가 돌아가는 교우를 말하고, 멧꿩이 교우는 멧꿩이가 한 곳에서 울면 다른 곳에 있는 멧꿩이들도 덩달아 울어대듯이, 전례 중에 입은 항상 움직이지만 생각 없이 움직이는 유형의 교우를 말합니다. 앵무새 교우 또한 앵무새처럼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소리는 잘 내지만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기계적이며 습관적으로 읊기만 하는 교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 이런 모습으로 전례에 임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전례가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만 그치게 되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활, 특히 수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완전히 재현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전례의 주체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직무를 부여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례

1981년 사제로 수품되었고,
1989년 로마 성안셀모대학교에서
전례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가톨릭대학교 전례학 교수로서
사제 양성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에 모인 공동체가 구체적인 전례 행위 안에서 그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비체를 이루는 개개의 지체는 신분과 직책 및 실제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으로 전례에 관여합니다.

신품을 통해 각각 고유한 직무를 부여받은 성직자들이 많은 전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들만이 전례의 공식 집전자이거나 모든 전례의 주체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례성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 모든 평신도도 직접, 간접으로 전례의 주체입니다. 평신도는 성직자와 함께, 또 성직자를 통하여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제물을 봉헌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세상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례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교우는 전례의 주체로서 모든 전례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곧 전례 의식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전례에서 이루어

지는 예식들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모든 전례에서 자기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교우들이 전례 주체로서 좀더 완전하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표시인말(기도, 성서 말씀, 사제와 회중이 주고 받는 말, 미사 경문 등), 동작(꿇고, 고개 숙이고, 합장하고, 일어서고 하는 동작과 사제의 동작), 전례용구(빵, 포도주, 성유 등)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 업적의 의미를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삶과 전례를 연결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례 중에 '환호'를 한다고요?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동의하거나 환영하고 찬성을 표시할 때에 흔히 한두 마디의 짤막한 환호를 하거나 박수를 치곤 합니다.

전례 중에 하는 '환호(acclamatio)'도 이와 비슷하게 주례자나 전례 봉사자의 기도, 권고 또는 동작에 공동체 전체가 동의와 찬성을 표시하는 짤막한 말씀을 뜻합니다.

언어학적 의미로 보아 '환호'는 한 단어(예: "아멘")나




간단한 문장(예: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긴 문장으로 된 환호도 있습니다. 긴 환호는 자체의 문학 양식 때문에 흔히 환호라고 하지 않고 '찬미가', '감사가'라 부릅니다(예: '대영광송', '거룩하시도다', '하느님의 어린양' 등).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을 본떠 전례 중에 환호를 많이 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전례 전승이 되어 신앙성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멘", "알렐루야",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 "오소서, 주 예수님" 등입니다.

그 후, 예식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전례 중에 행해지는 환호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흔히 기쁨·신앙·감사를 드러내는 전례 의식, 하느님의 말씀, 주례자나 전례 봉사자의 기도나 인사 끝에 환호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례 환호에는 성서적 환호도 있고 창작 환호도 있습니다. 성서적 환호는 "아멘", "알렐루야", "호산나" 등이고, 창작 환호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등입니다.

전례 중에 하는 환호는 교우 전체의 반사적인 외침이기 때문에 성격상 노래로 읊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우 전체가 노래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노래로 부를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노래로 만들어진 환호라 해도 멜로디가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면 환호의 특성을 잃어 버리기 쉬우므로 작곡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에서 발췌)

다음호에 계속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전례예식의 전통이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루가 22장 19~20절) 우리 신자들이 예식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교회를 사랑하고 좀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례학 박사이신 정의철 신부님의 허락을 받고 전례예식에 대한 연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인 남홍익 그레고리오 -



옥중서간(필레몬서, 에페소서, 골로사이서, 필립비서)과 데살로니카1,2서를 읽기 위한 길잡이

필레몬서

이 서간은 바오로가 에페소 감옥에서 63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서간 중 에페소서, 필립비서, 골로사이서, 필레몬서 이 네 서간을 '옥중서간'이라 합니다. 이 서간은 유일하게 바오로가 한 개인 신자인 필레몬에게 보낸 가장 짧은 한 장으로 엮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을 용서해 주라는 인간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오로의 사상을 알기전에 바오로의 인간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서간입니다.

에페소서

이 서간은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진 '바오로 관련편지'입니다. 바오로 신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간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에페소서의 중심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세상에 깊숙히 들어오셔서 온갖 형태의 인간 차별을 물리치시고 모든 이들을 평화와 일치에로 모아 들이십니다.



바오로는 우주적 차원에서 교회를 세가지 표상으로 묘사합니다. 즉, 교회를 신부, 몸, 건물이라는 표상으로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고 인간 상호간의 일치를 상기시킵니다.

에페소서는 교회의 신비를 다루는 편지입니다.

골로사이서

골로사이서는 에페소서와 아마 같은 기회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며 두 편지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교회는 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당대 골로사이 지방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다교 및 그리스철학(영지주의 등)과 뒤섞여서 이단적인 잘못된 이론과 이를 설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천상의 존재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또 율법의 관음들이나 의식을 지키거나 참여하는 것 자체를 신앙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바오로는 자신의 묵상과 통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립비서

이 서간은 에페소 감옥에 갇힌 바오로가 필립비 교우들의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와(1~2) 할례를 받고 유다교 계율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단을 단죄하는 편지(3~4장)로 된 두 통의 편지입니다. 감사편지 안에는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는 비결이 곁손에 있으므로 그 곁손의 예로 그리스도를 들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그리스도를 모시듯 한다면 공동체의 화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화는 비움으로 시작되어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셨듯이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과 내세우려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비움'과 '낮춤'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고로 (4,2-9) 바오로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한편, 그들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교회 지도자들간의 불목에 대해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억압과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평화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며 기쁨에 머무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시적인 성향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카 1,2서

사도 바오로는 2차 전도여행인 50~52년경에 소아시아(지금의 터키) 전도를 마친 다음 그리스도로 가서 필립비교회, 데살로니카교회, 베레아교회, 고린토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오로가 고린토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동안 데살로니카의 교우들이 바오로를 그리워하며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킨다는 희소식을 전해 듣고 기쁜 나머지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50년경에 씌여진 것으로서 신약성서 중에 가장 먼저 씌여진 작품입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바오로가 복음을 전한 최초의 유럽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 당시 데살로니카인들에게 가르침을 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깨우치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더욱 큰 혼란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는데 데살로니카1,2서는 이에 대한 두편의 편지입니다. 바오로는 주님의 재림은 전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들의 그릇된 설을 타일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일어나리라는 확신 때문에 일거리를 놓아버리고 남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M**

성서읽기표

- 1) 매번 읽기전에 “주의기도, 성모송”으로 시작기도를 바치고 마칠때는 “영광송”을 바친다.
- 2) 매일 꾸준히 읽는다.(읽는 날은 Check를 한다.)
- 3)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읽는다.
- 4) 그날의 말씀에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하루의 “화살기도”를 만들어 바친다.

날짜	요일	장 절	Check
8/1	목	필레몬 1장	
8/2	금	에페소 1장	
8/3	토		2장
8/4	일		3장
8/5	월		4,1~16
8/6	화		4,17~32
8/7	수		5,1~20
8/8	목		5,21~6,9
8/9	금		6,10~24
8/10	토	골로사이 1,1~8	
8/11	일		1,9~29
8/12	월		2,1~19
8/13	화		2,20~3,17
8/14	수		3,18~25
8/15	목		4장
8/16	금	필립비 1,1~20	
8/17	토		1,21~30
8/18	일		2,1~18
8/19	월		2,19~30
8/20	화		3장
8/21	수		4장
8/22	목	데살1서 1장	
8/23	금		2장
8/24	토		3장
8/25	일		4장
8/26	월		5,1~11
8/27	화		5,12~28
8/28	수	데살2서 1장	
8/29	목		2장
8/30	금		3장

*읽기표에 따라 쓰기 성서를 해도 좋습니다.

5,6,7월 후원해 주신 분들

김한기 신부

박명근 신부

(OK) 서 자캐오 수사

(LA) 김철석 부부(5-6)

김상배 부부(5-6)

이비비안

차중인 펠릭스

(NY) 장누칼다(5-6)

손데레사(5-6)

임베로니카(5-6)

윤멜라디오(5-6)

신동배(5-6)

김순임 세실리아

이귀옥 클라라

안동순 베로니카

김형태 요한

장인경 마리아

김성임 사비나

김마리아

(NJ) 오애희 유리안나

강덕기 베로니카

표한경 사비나

안경자 엘리사벳

(MN) 최충권 베드로

이창제 요셉

최영진

이경화

이인석교수님 부부

(VA) 김안나

정명우 소화데레사

(TX) 송소진

(MD) 성춘자 아녜스

김마리아

(MA) 신영아 마르티나

(MD) 도정현

(WA) 이선녀 엘리사벳

(CT) 배경숙

(CANADA) 이엘리사벳

고순주 요한나

무명

토론토성당 기도회

(PA) 뉴타운 평화의 모후 기도회

(GA) 김영보 카타리나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TN) 이광순 리트비나

(ITALY) 성모님의 딸

제14차 순례자들

마 리 아 의 응 답

어머니,

당신이 시작하신 그 응답이

제게는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하느님의 부탁앞에서

당신은 그저 '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떠나가는 아들 앞에서

또 다시 '예' 라고 하시고

죽어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서도

다시 한 번 하느님께 '예' 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과

제가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저는 선뜻 '예' 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느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신다고 생각될 때

저는 '예' 라고 하기보다

'제발' 이 먼저 나옵니다.

늘 하느님의 뜻보다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에게 당신이 보여주신 신앙의 응답은

조용히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어머니,

저도 당신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순명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

'예' 라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현대의 기적입니다.

케냐의 실라스 니이루 주교님 방문

지난 5월 6일부터 10일 동안 케냐의 실라스 니이루 주교님께서 개인적으로 메주고리예를 방문하셨는데 순례를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이제 메주고리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는 곳마다 메주고리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후로리다의 올렌도를 갔었는데 어떤 분이 우주 센터까지 저를 데려다 주면서 메주고리예에 여러 번 간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꼭 가보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고, 너무 먼 곳이며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성모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떤 이탈리아 선교사가 메주고리예를 간다면서 저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미국인에게 했던 똑같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즉, 시간이 없고, 먼 곳이며 돈이 없다는... 그 선교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돈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주교님의 마음을 성모님께만 여시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저는 지금 이곳 메주고리예 와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이 놀랍습니다. 강한 신앙심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줄을 섰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기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전혀 성당에 다니지 않다가 메주고리예 순례를 한 뒤부터 정기적으로 미사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들려주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것은 진정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을 것이고, 이

에 관해 이야기하고 로사리오를 나눠줄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가게에서 저에게 목주와 십자가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불러모아 아프리카 주교로부터 축성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성물 축성을 하고 그들 모두를 축복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발현이라는 사건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 아프리카에도 발현을 보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발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어 우리들이 회개하도록 하심이 아닌가? 내가 발현을 본다면 축복이지만, 그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신앙이 쇠신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발현이 신앙을 성숙시킨다면 좋은 것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모님

김안나

저는 4년여 전에 남편과의 삶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

각되어 헤어지려고 마음정리까지 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어 할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성모님의 철고의 고통을 통해 나의 잘못된 이기적인 욕심으로 제 자신도 잘못 살아 왔음을 깨닫고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기도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피정을 다니며 신심세미나의 영성을 통해 제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지니고 생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자매님께서 메주고리예를 다녀온 후 기쁜 마음으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웬지 저도 그곳에 가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욱 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 가보기를 갈망하며 성모님께서 저를 불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체신심 세미나 참석 중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 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제 삶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의 가정을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주고리예를 가게 되자 냉담 중에 있는 보수적인 남편과 집안 일이 걱정이 많이 되긴 하였지만, 주님 말씀에,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모든 것은 주님과 성모님께 다 맡겼습니다. 성지 순례를 갈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주님과 성모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총이기에 벅찬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순례 길을 떠났습니다.

이태리의 로마 베드로 대 성전에서 교황님 집전으로 성탄 전야 미사를 봉헌 할 때는 기쁘고 감격스런 마음에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로마의 성지 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베드로 대성전 순례 때는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에 기쁨이 넘치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기쁨을 남편과 나누게 해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그동

안 마음 고생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으며 성모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심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평화의 마을 메주고리예에 도착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산에 오르니, 그곳에서 절실한 회개와 많은 눈물로 통회하며 가정 안에서의 평화는 제 자신부터 이뤄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신 평화의 어머니께 깊은 감사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성모님 발현산과 십자가산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미의 봉헌이 되었는데, 특히 20년이 넘게 앓아온 허리디스크로 인해 평소에는 계단을 두 세단만 올라가도 쉬어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제가 메주고리예에선 발에 힘이 솟고, 마음에 평화가 있음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묵상기도를 하니 주님의 말씀의 힘이 새롭게 솟아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현산에서 고통의 신비 3단 묵상 기도를 할 때에는 "내 마음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에서 '그 말씀대로 항상 깨어 기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산의 11처에서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제가 지은 많은 죄 때문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감수하신 주님께 많은 눈물로 통회를 하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마음 고생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못질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 하여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다시 또 저의 가정을 주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발현산과 십자가산에서 기도 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입으며 기쁘고 감사의 찬미를 드리게 되었고 야고보 성당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미사 드릴 때마다 여러 나라에서 오신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니 더욱 은혜로웠으며, 미사전에는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를 드리고,

미사 후에는 영광의 신비 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더욱더 충만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체현시 시간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현존하심을 가슴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께서는 억눌린 제 삶 속에서 부족한 믿음뿐이었던 제게 이처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요조 신부님과 이영찬 사도요한 지도신부님, 아일랜드의 키알란 신부님의 인수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는 마음의 평화를 주셨으며 기도 중에 그분들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의 큰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늘 부정적이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랑의 말로 존칭을 쓰며,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의 가정의 봉헌을 받아 주시고 축복해주신 메주고리에 평화의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굳센 믿음의 열매를 갖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 일생을 봉헌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느님 아버지와 평화의 어머니께 바치며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상 처 와 용 서

호스피스 봉사자 송요한

3월 22일 금요일

한낮 면회시간을 맞추어 베드로를 찾았다. 사색에 잠긴 듯 미동도 없이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몸에는 여러 갈래의 호스 속 내용물의 움직임으로 살아 있음을 보일 뿐 이미 쇠락에 들어선 듯한 외모는 측은하기 그지 없었다.

면회시간이 다되어 모두가 물러나도록 깨어나지 않던 베드로가 마침내 눈을 떴다. 총기를 잃은 눈빛과 기력이 떨어진 목소리로 겨우 반가운 인사를 했다.

“대부님.” “나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제발 안 아프게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오. 그래. 제발...”

온기를 잃어 마른나무 가지 같은 손을 내밀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며칠동안 보고싶었던 내 마음을 전하며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한가 물었다. 뜰을 들이던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

“형이 잘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13세 이후 무척 힘들게 살았어요. 그동안 난 지금의 형에게 참 잘 해주었어요. 형이 내게 10개 해주었다면 난 100개를 해주었어요. 사업자금으로 3천만원을 대주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부부싸움까지 해가며 2천만원을 추가로 대주었는데 얼마 뒤 나한테는 상의 한번 없이 해약했다는 말을 남으로부터 들었을 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 서운함은 지금도 다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형이 아마 지금만큼 하지 않았을 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오랜 세월 마음 깊이 있던 불만과 갈등을 토로하며 자신의 정신적 상처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마음으로부터 많은 것을 비워가게 되자 그동안 억압되었던 분노가 더 이상 인내할 명분을 잃은 것 같았다. 삶의 상처가 되어 마음의 평화에 장애가 되었던 이런 말들은 곧 자기 삶 전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하는 회상의 실마리가 되었다. 나는 허리를 구부려 귀 기울인 채 설새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끊기있게 그의 말을 들었다. 아까운 시간을 행복의 허상을 쫓느라 써 버렸다는 회한과 채 여과되지 못해 남아있던 인간적 배신감과 그에 대한 분노가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이야기에 실려 마음 밖으로 나온 부정적 감정들은 흐르는 눈물이라도 씻겨지는 듯 점차 약화되어 감을 느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용서한다고 말했다.

가래를 뱉어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씬없이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잠시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지난번 영세 때 하느님께서 모두 용서해주셨다고 느껴요.” 틈틈이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지만 하느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몰랐는데 대부님과 수녀님을 만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선한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음이 느껴졌다.

“언젠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무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죄만 짓다 돌아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뭐라고 부탁드릴 희망은 없어?”

“그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얼마나 지쳐버린 삶이길래...

마음을 비운만큼 편안해졌는지 베드로가 조용해졌다. 우리는 그저 손을 마주잡은 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치유가 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하느님의 사랑이 덮고 있음을 느꼈다.

4월 11일 목요일

지난주는 공교롭게도 피정과 예비신자 입교환영식과 이에 대비하는 교리봉사단 준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가 방문을 못한 탓에 베드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무겁던 터였다. 출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스피스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듣기도 전에 직감적으로 베드로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맥박이 놀래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바빠졌다.

새벽 5시 30분경 2인실의 병실에서 한 노인환자를 벗(?)삼아 밤새 혼자 병상을 지키던 베드로의 생명의 불꽃이 꺼졌다는 소식이었다. 베드로의 임종을 유일하게 지켜보신 노인 환자분은 베드로가 불과 두어 시간 전만 해도 잠시나마 다소 거친 숨소리를 내긴 했으나 다시 조용해지기에 무슨 꿈을 꾸다 도로 잠들었으려니 했었는데 그렇게 잠자듯 운명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단다.

베드로의 사랑스런 모습과 함께 우리가 만나고 함께 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하느님의 사랑에 물들기 시작한 마음의 문을 통하여 가족들과 호스피스팀과의 사랑을 나누던 갖가지 모습들이 뇌리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 대화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무거운 추가 되어 내 마음에 달렸다.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뒤로 미뤄졌기에 모르는 것이 없고 사랑이 많은 하느님께서 알맞게 도와주셨으리라 믿는다.

그래. 그만큼 고통에 시달렸으니 이제 그만 쉬어야지.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었던 온갖 삶의 애환들일랑 그 고통과 함께 떨쳐버렸을테니 이제 그만 평안해야지...

† 주님. 오늘 당신께서 불러가신 이 베드로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가 마지막까지 희망으로 품었던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4월 12일 금요일

조문을 위해 아침 일찍 동료 봉사자들과 함께 영안실을 찾았다. 초출하게 차려진 빈소를 외롭게 지키던 가족들이 생기를 잃어버린 초겨울의 들녘처럼 서글프게 맞아 주었다. 둘러앉아 연도를 바친 후 고향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부인과 두 딸 등 가족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가족 모두 할 말을 잃고 있었지만 충혈되고 부어있는 눈들을 통해 사별의 슬픔이 느껴져 침묵가운데 마음으로 그 큰 슬픔을 나눴다.

잠시 뒤 가족으로부터 직접 기쁜(?) 소식을 들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했다. 나와 대화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자 미리 정리해 두었던 마음의 얘기들을 직접 한 것 같아서 더 잘된 일이지 싶었다. 베드로의 생애에서 마지막이 된 그 편지는 본인의 자청을 받아들인 수녀님에 의해 대필되었지만 편지에 담겨진 아빠의 마음은 평소의 아버지를 잔소리하는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는 딸들에게도 새롭고 긍정적인 아빠, 이제는 그리운 아빠의 기억이 되었을 것이다. 삶의 종점에서 죽음을 대면한 가운데 이루어진 가족과의 화해와 사랑.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도 그동안 병실방문을 통해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소상히 들려주었다. 진정한 사랑이 부족했던 가장으로서 부인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빠로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해했던 얘기들을 들려주었고 험난한 세파를 이겨내

고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던 그의 희망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께 기도하며 삶을 정리하던 그의 장한 모습도 소상히 전했다. 항공 운항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여고생 큰 딸(지연)과 요리연구가가 되고 싶어하는 여중생 막내딸(혜연)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자고 했다. 또한 무엇이든 상담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도록 했다.

베드로의 장례문제는 그의 시신기증이 받아들여져 모든 절차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사도예절은 내일 아침으로 예정되었다고 했다. 직장 출근으로 인해 사도예절에는 참석치 못하게 되어 향후 연락을 약속하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했던 베드로의 선종사건은 자기 한 사람의 일이기도 했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 과정을 함께 했던 우리의 목상을 통한 죽음이기도 했다. 사람이라면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행복을 추구하게 마련인데 이타적인 사랑만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참으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베드로는 자신의 고귀한 마지막 삶의 과정을 통해 투박하지만 전인적으로 엄숙하게 그 대답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 돌아갔다. 그의 생명이 왔던 그곳으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목상한다.

“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요한 6, 27)

† 사랑이신 주님. 이 베드로와 세상을 떠난 모든여가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4월 14일 일요일

지연이가 아빠로부터 받은 마지막 편지내용이 첨부된 E-mail을 보내왔다. 한창 예민한 나이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텐데도 아빠의 편지를 공개하여 비슷한 입장에 놓여진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어린 마음이 더없이 대견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이00 아빠..딸, 지연이에요~

오늘 점심쯤에 집에 도착했네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빠..잘 보살펴드리고...그래서

여기..

아빠가..저희한테 쓴 편지예요

To : 사랑하는 지연, 혜연아!

그리고 사랑하는 지연이엄마!

그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했었다.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준 편지,

눈물겹게 잘 보았다.

지연아! 혜연이는 동생이고 지연이는 맏이니까

뭐든지 행동을 혜연이 하고 똑같이 하면 안된다.

항상 앞서가는 언니가 되어서 엄마 많이 도와드리고,

속썩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엄마가 너희들 생활비를 벌어서 쓰려면 10원짜리도

절약하면서 살아야 살수 있을 것 같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부모노릇 제대로 못한 것,

어떻게 해야 너희들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빠는 너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을 주고싶다..

엄마와 지연이 혜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다.

아빠도 가족의 사랑을 체험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소

중한 사랑을 간직하게 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 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도해줄 것이다..

To : 지연이엄마..

함께 살았을 때 내가 아픔을 주었더라면 나를 용서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살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요.

당신을 사랑하오..좋은 아내였소..

지연이엄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기를 바라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빠가 마음과 사랑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2002. 4. 4. 아빠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보물

케시롤렌

나의 순례가 거의 끝나 갈 무렵인 3월에, 나는 슬라브코 신부님의 무덤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분께서 천국에 가신 후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었고 나는 그곳에 온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무척 피곤하였고 특히 미사도 보았기에 저녁에 본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묵는 집에 가서 쉬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슬라브코 신부님의 삶과 이분께서 나와 이곳의 순례자들에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강복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순례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시며 기도와 메주고리에의 순례자들의 삶의 틀을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나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는 즉시 깊은 기도 속에 빠졌고 아주 예리하고 투명하며 강한 빛이 나의 마음을 꿰뚫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떤 치유의 빛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깊은 평화 속에 빠졌습니다. 주위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나에게 말하는 어떤 내적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목소리는 슬라브코 신부님의 영어 목소리 라는 것을 즉시 알아 차렸습니다. 이 분께서 이 빛은 치유와 정화의 선물이며 하느님께



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선물은 무슨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신 이 공로를 얻은 것은 지난 수년간 이곳을 다녀간 모든 순례자들이 제임스 성당과 성당 주위에서 정성껏 드린 목주기도의 덕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성당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며 그 기도들을 통하여 수 많은 은총이 나에게 부여되었다고 다시금 상기시키셨습니다. 나는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피곤함을 잊고 곧바로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들의 기도에 너무나 감사하였고 성모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도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기도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목주기도가 얼마나 강한 기도인지를 깊이 확신하고 많은 문제들의 해답임도 알았습니다. 바로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뀔 것 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공로의 보물을 나눠가질 수 있고, 이것이 메주고리에서처럼 보다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곳도 없습니다. 메주고리에는 기도의 화덕불이며 이곳에서 수많은 은총이 쏟아집니다.

그러기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 금방 그 결과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주는 상황을 변화 시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신의 남편이나 조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기도의 공로를 받으셔서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어찌면 슬로바키아 혹은 중공에서 시작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기도하는 곳에 도달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성모님께서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순명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이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발현 증인 이반카의 년중 발현

발현 증인 이반카 이반코비치 엘츠는 2002년 6월 25일 년 중 발현을 맞이하였다. 발현증인 비즈카와 마리아, 이반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매일 발현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이반카, 미리아나, 야곱에게는 년중 한 번씩만 발현을 보고 있다.

성모님께서는 1985년 5월 7일 발현증인 이반카에게 마지막으로 매일의 발현을 하실 때 마지막 열 번째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이반카에게 매 년 발현 기념일인 6월 25일만 발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올해도 약속하신 발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발현은 6분 동안 그녀의 가족이 있는 집에서 3명의 자녀들과 남편이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동정 마리아께서 그녀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치지 말고 기도하여라.
평화, 평화,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성모님께서는 이반카에게 몇 가지 그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 해주신 후 어머니의 모성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서 기쁜 모습으로 발현하셨다.

기념 축제 발현

발현 기념 21주년 의 축제는 매우 즐겁게 거행되었고 수천명의 메주고리에 친구들이 각처에서 참석하였다. 6월 23일 11시에 성모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모든 순례자들을 파브로도 발현산으로 ‘특별한’ 초대를 하셨다. (6월 24일, 우리는 제임스 성당에서 저녁 성체현시를 가졌다.) 성모님께서는 21년 전에 MIR, MIR, MIR 라는 말을 가지고 오셨고 오늘 다시 금 강조하시면서 같은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우리 가족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이것은 성모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예를 들면, 토미스라브 브라식 사제가 1986년에 하신: “말과 많은 행동들은 세상



- 성모님 발현을 보고 있는 이반카 -

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씀이 떠오른다. 고스파께서 엘리나에게 최근에 하신 말씀은: “지금은 말 혹은 선한 일 조차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뿐이다. 그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기도하고 있노라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5월달 영성체 분배숫자와 공동미사 집전 사제

지난 5월 한달간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분배된 영성체는 100.000개 였으며 공동 미사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한 사제들은 국내외를 합쳐서 2,578명이었다. 5월 한달간 메주고리에 본당에 머물며 순례를 한 순례자들의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 영국, 아일랜드, 헝가리, 벨기에, 미국, 말타, 슬로바키아 공화국, 우크라이나, 체코 공화국, 루마니아,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레우니언, 레바논, 슬로베니아, 브라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국, 일본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했어요

6월 24일 발현 기념일 전야의 공동 미사는 밀란 롱가르 신부 주례로 155명의 사제들이 공동 집전했는데 이날 미사에서는 15,000명의 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발현 기념일 저녁 공동미사에서는 35,000명의 신자들이 참여했으며 브라니미르 못싸 신부의 주례로 약 20개국에서 온 200명의 사제들이 공동집전하였습니다.

메주고리에 본당의 동정녀 마리아 발현 21주년 기념행사

21년 동안 동정녀 마리아의 메시지들은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통해 전해졌고 모든 세상의 가정들에게 전해져 온 세계에 메주고리예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21주년 발현 기념행사를 위해 전 세계에서 100,000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개 대륙 전체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왔으며 특별히 올해는 국내 순례자들의 상당한 숫자가 증가했다는 특별함을 보여주었고 대 부분의 국내 순례자들은 평화의 모후이신 어머니 마리아께 기도하기 위해 맨발로 도보를 걸어서 도착한 순례자들이라고 합니다.

제 3차 전 세계의 교우 부부피정

제 3차 전 세계의 교우 신자 부부 피정 이 2003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메주고리예에서 열립니다.

피정의강의 주제는

“너희들의 가정 안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어라” 라는 주제이며, 자세한 프로그램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라며, 수용 장소가 부족하여 참가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안으로 신청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각 기도단체, 평화의 센터, 메주고리에 순례 가이드 및 봉사 단체장들을 위한 피정

제 10차 전 세계의 기도 단체장들과 평화의 센터 안내자들, 메주고리예와 관련을 맺은 모든 순례 및 자선 단체장들을 위한 피정을 2003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메주고리예에서 갖게 되는데 자세한 일정은 다음 소식지에 실겠습니다. **M**

더 알차고 예쁜 메주고리예 소식지를 만들기 위하여 15호 부터 한국에서 만들기 시작했으나, 편집과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하여 기대하던 소식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부님과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16호 부터는 더욱더 분발하여 메주고리예 소식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 하고져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집인 남홍익 그레고리오



English Edition of Queen of Peace



Message of June 25, 2002: Dear children! Today I pray for you and with you that the Holy Spirit may help you and increase your faith, so that you may accept even more the messages that I am giving you here in this holy place. Little children, comprehend that this is a time of grace for each of you; and with me, little children, you are secure. I desire to lead you all on the way of holiness. Live my messages and put into life every word that I am giving you. May they be precious to you because they come from heaven.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July 1, 2002

Dear Children of Medjugorje, Praised be Jesus and Mary!

1 - On June 25th, the Visionary Ivanka received her yearly apparition at home, in the presence of her family, and Our Lady was joyful. She remained 6 minutes with her. She shared with Ivanka a few new details about her life, and she gave her motherly blessing. Here is the message she gave for each one of us:

"Dear children, do not tire of prayer. Pray for peace, peace, peace!"

Ivanka is the visionary who knows the most about the future of the world, besides the 10 secrets she has already received from Our Lady between 1981 and 1985. However, she remains the most hidden of the six visionaries, having a simple life of a Croatian mother in the hamlet of Miletina, two kilometers from St. James Church.



The Celebration of the 21st Anniversary of the Apparitions was very joyful and friends of Medjugorje showed up in the thousands. Unexpectedly, Our Lady invited the pilgrims on Podbrdo, the Apparition Hill, for an "extra" apparition at 11 PM on June 23rd (on June 24th, we had a Vigil of adoration at St James). She mentioned that she came 21 years ago with the words "MIR, MIR, MIR!" and she underlined that today again she had to give us the same message: to pray for peace, peace in our families

and peace in the whole world. This shows that Our Lady's plan in order to be fulfilled still needs more prayer. For example, I remember some words from Fr. Tomislav Vlastic back in 1986: "Words and many actions will not change the world". The Gospa had recently said to Jelena, "Words are unimportant today, not even good works, but what really matters is to pray and rest in God." Father Vlastic explained, "why is it important to rest in God and pray? Because from that disposition of resting in God, of praying, every healthy activity, every activity which will save the world will come." (Sept. 86)

2 - Father Slavko Barbaric is definitely working hard from heaven! I often hear about blessings obtained near his grave, or by asking for his intercession. The following is an example from Cathy Nolan, whom you now know well, about a grace she received through him, which she allows me to share with you (see PS).

"Toward the end of my pilgrimage last March, I managed to make a visit to Fr. Slavko's grave. It was my first visit to the spot since he had gone to heaven, and I was happy to be there. Since I was so tired and I had already been to Mass, I had planned to go back to our house to rest, instead of joining the evening program of the parish that night. As I knelt down, I thanked God for the life of Fr. Slavko and for the countless ways that he had blessed me and all the pilgrims. I felt so happy to show reverence to him, who had such a huge impact on the pilgrims, who led the prayers and set the tone for a pilgrimage life in Medjugorje!

"I immediately felt myself drawn into deep prayer and I was aware of an inner and piercing light shining in my mind, a clear, strong light. I understood it was a healing light of some sort. I felt such deep peace! I couldn't hear anything around me. Then I heard an inner voice that began to speak to me. I recognized Fr. Slavko's English... and this voice was telling me that the light was indeed a gift of healing and cleansing that God wants to give me right now. He said it was through NO merit of my own that I was receiving this gift. I neither earned this nor deserved it. Instead, the merit was won through the prayers of all the people around the church of St James, all the pilgrims who have prayed their rosaries so faithfully all these years there at the church. He then told me to go to the church and join in the prayer, knowing that it was from those prayers that so many graces were flowing to me. I could not refuse such an order! I forgot about my tiredness and went straight to the church. I sat down on a bench among the people and I was overwhelmed with gratitude for their prayer. I felt as if I were being hugged by Our Lady. The sense of security I felt was immense. I knew it was coming from my brothers and sisters who were praying the rosary.

"I carry in me now a deep sense of conviction that the rosary is powerful, that it is the answer to so many situations. It is our prayer in response to Our Lady's call that will change the world. We can share in the Treasury of Merits of the Church, and nowhere is it more evident that in Medjugorje. Medjugorje has become a furnace of prayer where so much good





happens!

"So I wanted you to know that your rosary is making a difference, even if you may not see it right away. You may think you are praying for your husband or your nephew and that nothing is happening in their life... Well, Our Lady is taking the merits of your prayers and is using them in her plan. And it may start out in Slovakia, in China; but it's going to reach those you're praying for sooner or later. There is a gigantic plan that she has, that none of us could comprehend. But we are part of it by our obedience to her and our prayer from the heart"

3 - July begins the priests' retreat in Medjugorje, bringing priests from all over the world. Let's commit ourselves to pray for them and for all priests in a very special way during this week! On this occasion, let me remind you of a few messages Our Lady gave here to the priests, and also to us the faithful regarding our priests:

- "I urge you to pray the rosary. Invite everyone to pray the Rosary! With the rosary you will overcome all the troubles which Satan wants to inflict on the Catholic Church. Let all you priests pray the Rosary! Give time to the Rosary." (Marija asked Our Lady what she wants from priests, June 25th, 1985)

- "The priests should visit families, especially those who do not practice anymore and who have forgotten God. Priests should carry the Gospel of Jesus to the people and teach them how to pray. The priests themselves should pray more and also fast. They should give to the poor what they don't need." (To Jelena, May 30th)

- "Live my messages. Do what the Church is telling you to do."

- "While preaching, you should not use difficult philosophical concepts or theology that the people will not understand. May you speak with simplicity, with words overflowing from your heart."

- "They are my most beloved sons."

- "The blessing of a priest is greater than mine. If the priests knew what they give when they bless, they



would bless day and night."

- "Priests do not need your criticism, they need your prayers and your love. I ask you to help your priests."

- "Today it is not easy for the priests to remain faithful. You should support them with prayer!"

- "When you are at Mass, do not judge the priest, do not look at others, do not take pictures. Pray!"

- "... Satan is beginning to lose his power and has become aggressive. He is destroying marriages, creating division among priests and is responsible for obsessions and murders. You must protect yourselves from this through fasting and prayer..." (To Mirjana, 1982)

4 - Our Lady also said to parents (and those responsible for others) "do not ask anything from your children [or other people] that you do not give the example of yourself." This reminds me of a beautiful example that Fr. Svetozar quoted in a recent homily here:

One day an Indian woman brought her daughter of 7 to Mahatma Gandhi. Knowing his purity of heart and the immense impact he had on people, she was hoping that a word from him would convince the little girl not to eat sugar anymore, for she was severely sick from diabetis. Gandhi listened to the mother and when he spoke to the little girl, he was very loving to her but didn't mention at all the necessity for her to avoid sugar. The mother was puzzled and a little upset. Gandhi simply greeted her and said: "Come next week!" So both the mother and the child came back a week later and the same request was made by the mother. This time, Gandhi did ask the child to avoid sugar. Then the mother asked him why he had not said so the very first time? He replied: "I was myself enjoying eating sugar. Therefore, how could I ask the child not to? I needed to renounce it myself first before I'd demanded the same thing from the child!"

**Dearest Gospa, Mother and Queen of Peace,
pray for us! Thank you for these 21 years.
Please don't quit!!**

Sr. Emmanuel

로마 및 메주고리에 순례 (Denver, CO 출발)

2002년 10월 14일부터 2002년 10월 25일까지 (11박12일)

10월 14일(월) Denver공항 출발

로마 도착

산 조반니, 란치아노 기적의 성체, 성혈 성당

Assisi의 성프란치스코 성당

4대 성전, 까따콤베, 성 십자가 성당 등등

메주고리에 도착, 발현산 순례(환희, 고통의 신비 로사리오 기도)

십자가산 순례기도(14처 기도), St. James성당의 저녁 예절

티할리나에서 한국어 미사, 요조신부님과 만남, 치유 예절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공동체 방문

발현증인과의 만남, 청 십자가에서 기도와 묵상

Dubrovnik의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25일(금) Denver 도착.

지도 신부 : 유 해 옥 요 아 킴 (덴버성당 주임신부)

덴버 출발 기준 \$1,980

메주고리에 및 프랑스 성지 순례 (Seattle 공항 출발)

2002년 10월 7일부터 2002년 10월 18일까지 (11박12일)

10월 7일(월) Seattle/Tacoma 공항 출발

메주고리에 도착

한국어 미사, 발현산 순례(환희, 고통의 신비 로사리오 기도),

St. James성당의 저녁 예절, 성시간

티할리나에서 한국어 미사, 요조신부님과 만남, 치유 예절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공동체 방문

십자가산 순례기도(14처 기도)

Dubrovnik으로 출발,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파리 찰스 드골 공항 도착, 릿지웨로 출발-버스편

릿지웨 소화테레사 기념 대성당에서 미사

파리로 출발. 성녀 카타리나의 기적의 메달 성당

노틀담 대성당 등 파리의 성지 순례

항공편-루르드로 출발, 성모님 발편 동굴, 십자가의 길 14처

기적의 샘물에 침수

대 성당에서 미사, 발라데다 성녀 박물관

18일(금) 파리 출발

지도 신부 : 최 종 건 미 카 엘 (타코마성당 주임신부)

Seattle 공항 출발 기준 \$2,100

신청 및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센터 USA(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3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Fax.(631)367-6194)

E-mail. gregomam@hotmail.com

성모님의 부르심에 깨어나 온세계에 평화를 전합시다

- (1)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단다.
지금이라도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를 도와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당신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 (2)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신 성모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
죄의 분별조차 희박해진 이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함께 참여합시다.
- (3) 결코 후원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의 모후센터의 주보성인이신
막시밀리안 꼴배 신부님의 정신을 이어 받아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함께 하시는
티없으신 성모신심을 통하여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들께는

평화의 모후 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는 "메주고리에"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지향은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 해 드립니다.

매월 메주고리에 순례때와 첫째 토요일에 회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메주고리에 순례때 드리는 봉헌 및 서약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센터는 메주고리에의 성모님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온 세계에 주시는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있으며
메시지 전파를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실 단체나 봉사자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본 소식지는 비매품이 오며 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 드립니다.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쓰여집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메주고리에 소식지” 구독 신청서

성명:	영문:	영세명:		
주소:				
자택 전화:	직장 전화:	Fax:	H.P:	
e-mail 주소:		소속본당:		
해당란에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월		6개월	1년	기타
보내실 곳(mail to):		USA 남 그레고리오 E-mail. gregorynam@hotmail.com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ewYo가 11743 / Tel: 631-367-6191 / Fax:631-367-6194		
한국 허혜경 안젤라 E-mail. hhk2123@hanmail.net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 102동 505호 / Tel : 031-878-7362 / HP 017-785-3535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과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 가실 수 있도록 한알의 작은 밑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며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Queen of Peace Center U.S.A

U.S.A 남홍익 그레고리오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 / E-mail. gregorynam@hotmail.com

한국 허혜경 안젤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 102동 505호

Tel : 031-878-7362 / HP 017-785-3535 / hhk2123@hanmail.net